

박태원 교수의 31

불교로 보는 인생

대학생 시절, 광주 무등산에 갔다가 어느 절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동이 터 올 즈음, 절 주변 나무 밑에 앉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산등성이를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때, 소리가 있었다. 청아한 품격, 단아한 자태, 환한 각성을 담은 듯한 소리. 향처럼 퍼지는 그 소리는 도량석이었다. 너무 좋아 그 날은 종일 소리 속에 잠긴 듯 하였다. 염불소리가 처음으로 마음에 담겼다.

작년 2학기 철학과에 개설된 '불교철학 특강'이라는 강좌를 진행하는 중 한 학생이 제안하였다. "교수님, 한 번쯤 절에 가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빛나는 학생들의 눈. 〈대승기신론〉의 무게에 잔뜩 눌려 있던 터라, 야유회 가듯이 들떠 환호했다. 마침 적절한 인연처도 있기에 나도 선뜻 응했다.

울산대에서 부산 쪽으로 30분 가량 가면 양산 천성산 자락에 홍룡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절 뒤편에 제법 큰 폭포를 끼고 있는 오래된 도량이다. 주지이신 서강 스님은 대학 시절 들던?" "무언가 초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염리심(厭離心; 세속의 관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을 느꼈나 보구나."

인간의 감관 기능 가운데 아마도 소리만큼 마음을 잘 담아내는 것도 없을 것이다. 얼굴에 마음이 잘 반영된다고는 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을 읽기 어렵게 얼마든지 관리될 수 있는 것이 표정이다. 그러나 목소리는 그런 관리가 어렵다. 음성에는 그 때 그 때의 마음과 정서가 매우 민감하게 반영된다. 말 할 때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가 소리에는 즉각 담겨 나타난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표정보다는 음성을 통해 그 마음과 감정 상태를 감지해 내곤 한다. 말 자체를 성스럽게 여겨 문자보다는 소리를 통해 가르침을 전승하려는 인도 암송의 전통은 아마도 소리와 마음의 밀접한 관계가 고려된 듯 하다.

소리에는 마음과 정서가 담기고 사상이 반영된다. '깨달음(佛)을 챙긴다(念)'라는 선(禪)의 의미보다는

관행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

염불 들을 때면 마음이 가라앉고

불교학생회 동문이기도 하여 나와는 각별한 인연이다. 출가 후 20여 년 가량 줄곧 선방에만 계시다가 최근 홍룡암 소임을 맡으셨다. 마침 인근 대구대와 인제대에 동문들이 근무하고 있어 그들과 함께 속가 때부터의 정을 앞세우며(?) 아무 때나 편하게 올라간다. 언제나 웃으며 툭 터놓고 맞아주시는 서강 스님의 인덕에 기대어, 때 지난 공양도 염치없이 챙기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번거롭기만 한 학생들의 현장 수업도 그곳 홍룡암에서 안아주었다.

예정한 날 학생들을 인솔하고 절에 도착하니, 마침 스님은 예불 중이셨다. 관음전 법당에 학생들을 앉히고 잠시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염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출가 전 대학생 시절에도 법우들 사이에서 소문났던 서강 스님의 염불 소리가 들뜬 학생들의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켰다. 홍룡암 보살님들이 특별히 준비해 준 맛난 잡채까지 든든히 채우고 하산한 학생들의 다음 날 화제에는 주지 스님의 염불이 올라 있었다. "교수님, 저는 주지 스님의 염불 소리가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스님 염불을 듣고 어떤 느낌이

그저 불교 의례나 독경으로 행하는 '불교 소리'를 관행에 따라 염불이라 하자. 그 소리, 마음이 담긴 염불을 들을 때면 염리심(厭離心)을 느낀다. 염불을 들으며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한 평안을 느끼는 것은 '세속의 흐름에 들뜨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염리심에 감응하기 때문인 것 같다.

깨달음의 여정은 삶과 세상에 대한 태도의 조정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관행(세속)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싹터야 새로운 해방의 길이 눈에 들어온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염리심이라 하신다. 스님은 그 염리심을 삶의 방식(출가)으로까지 실천하는 분이다. 그러니 스님의 염불소리는 선명한 염리심을 담게 마련. 혼이 실린 염불은 듣는 이의 마음에 염리심의 공명(共鳴)을 일으킨다. 그런 염불은 그 자체가 수승한 설법일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매일새벽 '본성자리 찾기' 가부좌

참불자의 길 재가수행의 귀감 배광식거사

"우리의 삶은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참선은 그 당겨진 고무줄을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선을 하다보면 삶의 유연성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이것이 참선 수행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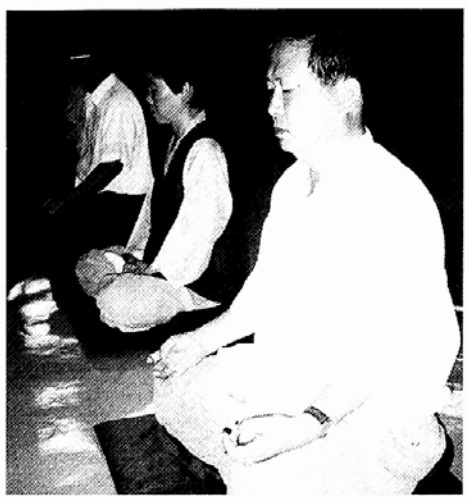
참선수행 모임인 선학원 선정회의 경주(景宙) 배광식 회장(53세, 서울대 치대 교수)은 참선수행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대 치대 부학장

배회장은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잠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간단한 몸 풀기를 마치고 마루에 편안히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두 손을 단전에 모으고, 시선은 1m 앞쪽을 향해 자연스레 떨군다. 그리고 호흡을 하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창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지만, 배회장에게 매일 새벽 30분의 참선은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새벽 참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서울 삼선교 자택에서 직장인 혜화동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한다. 올해 치대 부학장에 임명된 배회장은 요즘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 환자 진료와 학생 지도, 행정 업무까지 이중 삼중의 업무로 눈코 뜰새가 없지만 참선 수행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 배회장에게 참선은 본말이 전도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자, 본래 자기를 찾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여행이다.

선학원 선정회와는 5년 전 인연을 맺었다. 요즘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선정회에서 도반들과 참선수행을 하고,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정진을 한다.



◇참선수행을 어렵게만 생각말고 일상으로 받아들여 꾸준히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배광식 선정회 회장.

선정회와 5년 인연

"참선을 배우기 위해 선정회를 찾은 초심자들의 대부분이 단기간 동안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선은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참선에 임해야 합니다. 꾸준히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남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배회장은 참선 수행을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참선은 쉬는 겁니다.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정진 가장 중요"

배회장은 이미 청소년시절에 서울사대부고 보리회,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덕사 수련회에서 방장 원담스님(당시 총무스님)에게 참선법을 배웠다. 한창 의학공부에 열중했던 대학시절에는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며, 학교공부와 참선공부를 병행했다. 그런 배회장이 참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 청화스님(성륜사 조실)을 만나고 부터다. 현재 금륜회 전국신도회 부회장이기도 한 배씨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는 성륜사에 가 도반들과 함께 자신의 본성을 열심히 찾는다.

"현대인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번도 좋습니다. 매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힘이 들면 참선 수련회에서 스님들께 지도를 받거나, 선정회와 같은 참선 수행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⑧ 증시랑에 대한 답서(6)

생각 놓는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중생 세계의 일은 애써 배우지 않아도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리 저리 되는대로 행하여도 늘 그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옆으로 밀쳐 두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출세간(出世間)의 반야심(般若心)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부터 익혀온 일과는 서로 위배되어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굳게 지켜 나아가 중생사(衆生事)와 반야심(般若心)이 결코 양립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반야심에 깊이 들어간다면 중생사를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온갖 사마(邪魔)와 외도(外道)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선문(禪門)에 들어오는 첫째 조건은 발심(發心)이다. 발심이란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세속의 여러 가지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를 얻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만약 세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발심한다면, 이것은 선 공부의 발심은 아니다. 선 공부는 세속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선 공부를 하려면 어떠한 세속적인 일도 가치 있게 보아서는 안된다. 오로지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서 세속의 구속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온갖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세속의 일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눈길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 공부에서 목표로 하는 반야(般若)는 아직 한 번도 그 맛을 본 적이 없으므로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속과 반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더욱 반야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세속에서의 일은 무슨 일이든 모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대상이든 아니면 생각 속에 있는 대상이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느끼는 대상이든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바라는 대상이든, 세속적 일은 모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상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반야에는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없다. 반야가 곧 해탈인데, 만약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대상에 구속되어 버리므로 그것은 해탈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관계할 수 있지만 오직 반야에는 관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생각을 놓는다' 고는 말할 수 있어도, '반야를 잡는다' 는 말은 방편어로서도 어색한 말이다. 반야는 관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잡는다' 라는 말이 해당되지 못한다. 이처럼 반야가 관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를 공(空)이라고도 표현한다.

마지막 한 생각 내려놓는 것을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서서 앞으로 한 발 내딛는다' 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이다. 생각과 같은 세간의 일에는 발 디딜 곳이 있지만, 반야는 허공과 같이 발 디딜 곳이 없다. 〈금강경〉에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생각 놓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범부는 반드시 자기 자신[自我]이라는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여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갖 종류의 사량분별을 통하여 자신의 관념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라는 관념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헛된 환상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거꾸로 된 어리석음이며, 모든 번뇌가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지 않으면 추락해버리는 중력 속의 물체가 아니라, 본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空)이라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육체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끝에서 한 발 내디디면 추락하여 죽고 말겠지만, 마음은 한 발 내딛어 허공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본래 공(空)인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자기 자신 버리기를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성 명 서

천 육백 년의 역사 속에 백제불교의 중심도량인 태화산 마곡사의 초창은 신라 자장율사요 대중선원의 최초 개원은 신라 보조 체징국사이며, 중창개원은 신라의 범일 도선국사와 고려 보조 지눌국사이다.

마곡사 태화선원의 최근 개원역사는 만공 월면선사로부터 법천 용음선사로 그 법맥이 이어져 그 은제자인 취담 일현화상이 주석하심으로 그 문하를 이루었다. 이후 대중들은 법을 구하고자 이 도량에 머무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제21대 주지인 진허스님은 태화산 마곡사를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만사가 사람에 의하여 성패됨을 말함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교구종회에서는 오직 여법한 수행으로서만 불교의 참 뜻을 전하고자 하는 현 주지이신 진허 스님을 중심으로 일심 협동하여 교구를 화합케하고 안정된 종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종헌 종법을 준수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화합승가 수호에 전력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은 청규에 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보를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한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주지 일동

마곡사 진허, 고산사 진각, 보석사 혜완, 용암사 원정, 쌍계사 무일, 대조사 승하, 현정사 자암, 경지장사 홍주, 송불암, 개덕사, 월은사 진욱, 세심사 성엽, 광덕사 노굉, 동혈사 혜우, 옥련암 종인, 신원사 법전, 대승사 정욱, 장곡사 대진, 관측사 탄우, 갑사 장곡, 무량사 승일, 백운사 현정, 고란사 성수, 정혜사 성연, 성불사 원경, 해원사, 명법사 순형, 신안사 성안, 비암사 태관, 금강암 정천, 중대암 도연, 만일사 성준, 미륵사 원명, 오덕사 서명, 오봉사 현문, 원각사 정근, 법련사 본각, 성월사 서곡, 보문사 동문, 용화사 영진, 비래사 석파, 봉서사 성암, 선림사 법용, 광덕사 정행, 영수암 성도, 영선사 현도, 봉정사 대호, 무진암 정원, 봉곡사 묘각, 정각사 상초, 해명사 명진, 금지암 도진, 인취사 혜민, 중암사 철린, 송림사 덕운, 영은사 법천, 영은사 정엽, 동학사 일연, 태고사 도천, 백련암 승주, 보광암 회유, 보광사 승지, 운장암 법공, 은석사 기산, 공주포교당 여경, 해광사 성현, 극락정사 원종, 천황사 선오

공 고

취담 일현화상의 유지를 받들어 구성된 일현문도회는 문도의 화합과 교구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기 2545년 3월 24일 "마곡사 문도회"의 명칭으로 개최된 회의는 본 문도회의 목적에 위배됨으로 이 회의에 결의된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음을 공고하오니 일현문도 제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3월 30일

일 현 문 도 회 일 동

진연(문도회 운영위원장), 진허(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주지), 철호(문도회 운영위원), 무일(쌍계사 주지), 성열(문도회 운영위원, 강남포교원장), 원혜(문도회 운영위원, 봉은사 주지), 진각(문도회 운영위원, 종회의원, 고산사 주지), 대진(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부주지, 장곡사 주지), 성효(문도회 운영위원, 혜원사 주지), 성연(정혜사 주지), 대허, 동해, 동문(보문사 주지), 성안(신안사 주지), 장곡(문도회 운영위원, 갑사 주지), 승일(문도회 운영위원, 마곡사 기획국장, 무량사 주지), 혜안, 원경(마곡사 교무국장, 성불사 주지), 원종(극락사 주지), 현묵, 석파(문도회 운영위원, 비래사 주지), 석전, 석진, 각성, 각범, 경덕, 정덕(상주사 주지), 중암, 중연(좌성사 주지), 규봉, 노굉(광덕사 주지), 노휴(마곡사 원주), 정천(금강암 주지), 여경(공주포교당), 홍주, 명월, 호선, 혜명, 종봉